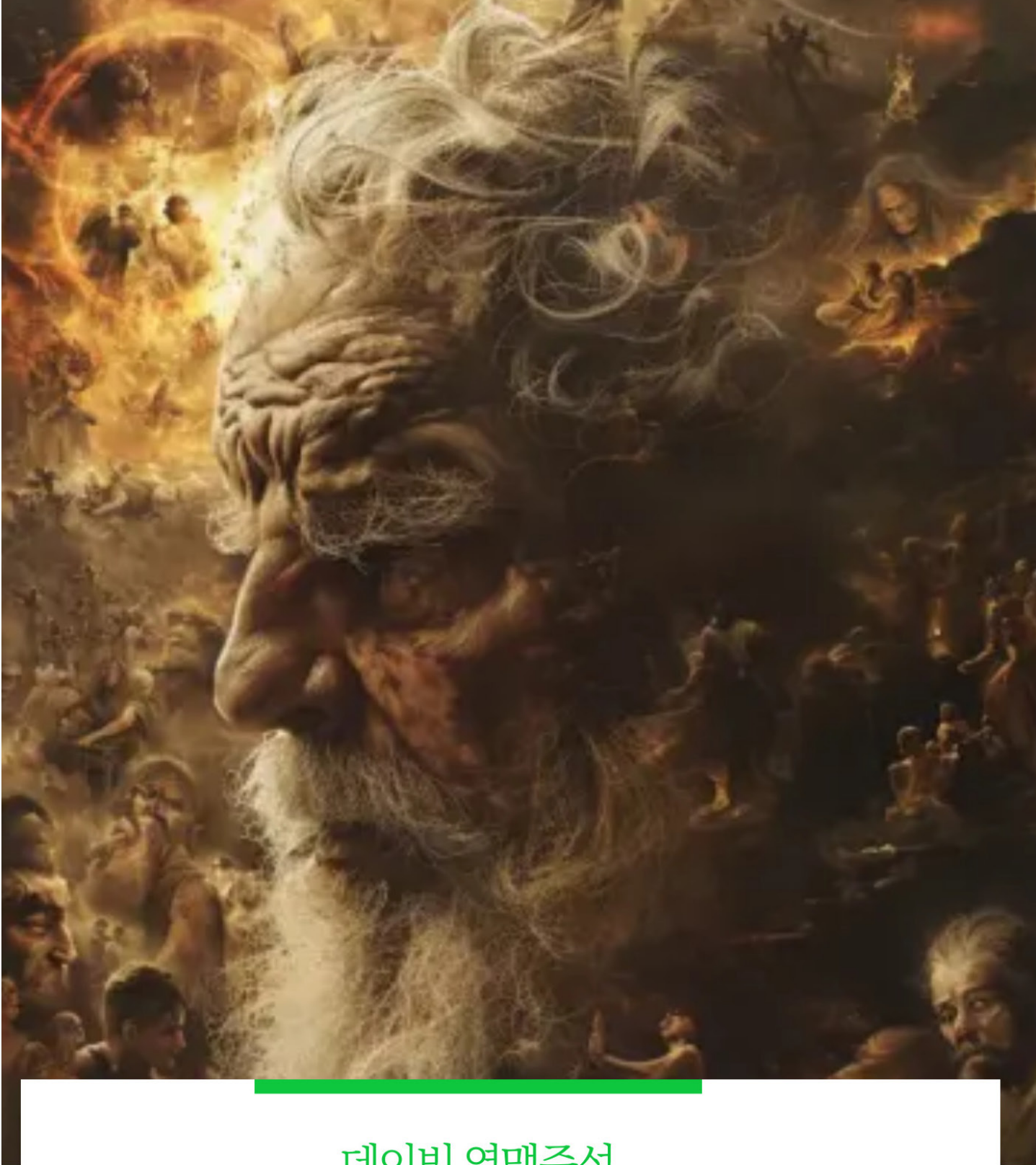




데이빗 영맥주석

전도서

David Spiritual Commentary

들어가는 말

'데이빗 영맥주석'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주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의미를 두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성경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영맥주석'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여쭙가면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주석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다면 이 주석을 권해 드립니다. 이 주

석으로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삶이 놀랍게 변화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
게 될 것이며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성경
이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석은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도 매우 귀한
주석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목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석을
통해 성경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저자 데이빗리 목사 올림

전도서 1장 =====

[전 1:1]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 1:2]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 1:3]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전도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코헬레트' <קֹהֶלֶת>입니다. 그 의미는 회중에게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 '성직자',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저자라고 알려져 있으며, 기록 연대 또한 솔로몬 왕의 말기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쓴 이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허무하고 무의미함을 솔로몬은 그의 인생에서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서두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헤벨>입니다. 그 의미는 '숨', '공허함', '속'

이 텅 빔'을 뜻합니다. 이것은 헛되다는 것을 최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수고' <아말>입니다. 그 의미는 '열심히 일함', '진저리나는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진저리날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열심도 예수 안에서 있어야 비로소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없는 성공은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세상적 성공과 노력은 결국 허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고대 철학자들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세상의 모든 것은 허무하며,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내면의 평화와 신에 대한 믿음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은 그 당시 세계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며,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세속적인 성공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과 성취, 성공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허무하고 공허해진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통해 만족감을 얻으려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모든 노력은 헛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인간의 모든 노력은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하고 실천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30)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수고도 예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으며, 그 수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으로 인도됩니다.

[전 1:4]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 1:5] 해는 났다가 지며 그 났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전 1:6]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전 1:7]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전 1:8]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솔로몬은 인생의 무료함과 무상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온다며 세대의 반복을 이야기하고, 해가 뜨고 지는 것, 바람이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그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연의 반복성을 설명합니다. 또한 그는 강물이 바다로 흐르고,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그 바닷물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 비가 되어 강물이 되는 반복되는 현상을 말하며, 인생 또한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 1:4-7]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났다가 지며 그 났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러한 반복적인 인생을 보며 솔로몬은 삶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깊이 느꼈고, 모든 것이 반복될 뿐

이라며 무의미한 노력을 경고합니다. 그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8절 상)라고 말하면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8절 하)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국가의 문제와 백성들의 불평에 귀 기울였고, 끊임없이 해결하려 했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백성들은 불평하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입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며, 아프다고 불평하고, 죽는다고 불평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그를 피곤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피곤함을 느끼며, 솔로몬은 삶의 무의미함과 고뇌를 강조한 것입니다.

"[전 1:8]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우리의 삶에서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들이 때때로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피곤한 현실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때가 많습니

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의미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피곤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피로와 무거운 짐을 맡아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피곤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헛됨과 반복성 속에서 진정한 가치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성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전 1:9]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찌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전 1:10]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우매 전에 이미 있던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 1:11]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에게 기억됨이 없으리라

솔로몬은 "...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9절 하)라

고 고백합니다. 그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은 지금 있는 것이 이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옷도 이전에 있었던 옷과 같은 것이며, 지금 먹고 있는 음식도 이전에 먹었던 음식과 같은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생명도 이전에 누군가 살았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10절 상)라고 말하며,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이전 세대들이 누렸던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삶의 반복성과 무의미함을 강조하는 고백으로, 그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새롭거나 독창적인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이전 세대들의 삶이 지금과 같았고, 지금의 삶도 후세들에게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삶 안에서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의미도 남지 않으며, 모든 것이 가치 없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락한 세상과 '해 아래'의 관점에 국한된 것입니다. 세상 개념은 세상의 삶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고 가치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다른 관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과 함께한 믿음의 역사가 영원히 존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모든 것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님의 말씀도 영원하고, 주님의 언약도 영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영원하며, 우리의 신앙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행한 신앙의 노력들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미 믿음 안에서 잠든 선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의 열매와 본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의미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증거는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며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성도에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영원히 가치 있고 의미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반복성과 허무함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과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 반복적인 일상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원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삶이므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

원한 계획 안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전 1:12]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전 1:13]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전 1:14]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 1:15] 구부러진 것을 능히 곧게 할 수 없고 이 지러진 것을 능히 셀 수 없도다

[전 1:16] 내가 뜻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무릇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으로

[전 1:17]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줄을 깨달았도다

[전 1:18]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괴롭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왕이었기에, 다른 이들보다 훨씬 많은 권력과 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없는 세속적 탐구 속에서는 그의 삶이 내면

적으로 불만족스러웠고 괴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고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피곤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삶의 수고가 결국 괴로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전 1:13)고 말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인간적 노력이 결국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누린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괴로움은 창조주를 배제한 세상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중심에 둔 삶을 살았다면, 그의 삶은 참된 안식과 구속사적 가치를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만왕의 왕이신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솔로몬의 타락과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한 의의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이나 쾌락을 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으며,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수치 속에서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 15: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은 사랑으로 사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허무한 피곤함과 괴로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승리와 영광의 대속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헛됨과 고난 속에서도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괴롭게 느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에 미혹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지혜와 재물,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와 통치는 결국 헛된 우상 숭배와 번뇌로 귀결된다는 것을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전 1:8] ...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없이 채우려 했던 세속적 욕망

이 결국 영혼을 곤고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노력하지만, 참 생명이신 하나님 없이는 결코 참된 만족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전 1:14]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해 아래서 얻는 세상의 성공이나 쾌락은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과의 언약적 관계를 떠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한계와 인간 지혜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전 1:15] 구부러진 것을 능히 곧게 할 수 없고 이 지러진 것을 능히 셀 수 없도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로 인해 일그러진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없으며, 인간의 지혜로는 결핍된 인생을 온전하게 채울 수 없다는 한계를 토로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전히 세상의 탐구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지혜와 미련함을 실험하려 했습니다.

“[전 1:17]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줄을 깨달았도다”

그는 해 아래의 온갖 지혜뿐만 아니라 광기와 우매함까지도 직접 시험해 보았으나, 하나님 없는 모든 지식적·경험적 탐구는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도리어 영적 무기력과 번뇌만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제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을 떠나면 그 지혜는 빛을 잃고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는 교만과 멸망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실패를 거울삼아 참된 생명을 얻으려면, 오직 우리의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에만, 우리는 세상의 헛된 유혹과 번뇌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 =====

[전 2:1]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전 2:2]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전 2:3]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제어하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우매함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평생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 때까지 영위할까 하여

[전 2:4]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전 2:5]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전 2:6]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전 2:7]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맞이 가졌으며

[전 2:8]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전 2:9]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

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전 2:10]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전 2:11]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며 즐거움을 추구해 보았습니다. 그는 "[전 2:1]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고 고백하며 쾌락의 한계를 친히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원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즐거움으로 스스로를 시험해 보겠다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즉, 솔로몬은 참된 '낙'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해 아래의 온갖 즐거움을 동원하여 직접 경험해 보았던 것입니다.

'낙'<토브>입니다. 그 의미는 '선한 것', '좋은 것', '복된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진정한 낙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선한 복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최상의 선으로 오인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 온갖 수고와 집착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교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물질적 번영, 명예와 권세, 일시적인 육체의 만족이 영혼에 참된 평안을 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해 아래의 쾌락은 영원하지 못하며 결코 인간의 영적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안락과 희락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직접 겪은 삶을 통해 세상 쾌락의 무익함을 구체적으로 폭로합니다. 그는 먼저 웃음과 희락에 대해 언급합니다. '희락' <심하>입니다. 그 의미는 '기쁨', '즐거움'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웃음과 희락은 일시적인 마취제에 불과하며, 인간을 구원하거나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며 지혜와 방탕 사이를 저울질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지혜로 육체의 쾌락을 제어하려 했던 그의 시도 역시 영혼의 공허를 메울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거대한 사업을 벌였습니다. 집들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일구며, 동산과 과원을 조성하고 수목을 기르기 위해 연못을 팠습니다. 남녀 노비를 거느리고 막대한 가축 떼를 소유했으며, 온갖 금은보화와 노래하는 자들, 수많은 처첩을 두었습니다. 그는 이전 예루살렘의 그 어떤 왕보다 부강하고 창성했습니다.

"[전 2:9]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성하니..."

그는 눈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결코 금하지 않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세속적 성취를 극대화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의 결론은 헛됨이었습니다.

"[전 2:11]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세속적 부귀영화와 자기중심적 성공이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하며,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망하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인정했습니다.

[전 2:12] 내가 돌이켜 지혜와 미치움과 우매함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꼬
이미 행한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전 2:13]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전 2:14]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그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전 2:15]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것을 나
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
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전 2:16]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매자와 일반이라 요사이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
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솔로몬은 세상 안에서 지혜가 우매함보다 우월하
다는 상대적 가치를 관찰했습니다.

“[전 2:12] 내가 돌이켜 지혜와 미치움과 우매함을
보았나니...”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처럼 인간의 도덕적·지적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훨씬 유익해 보였습니다. 지
혜자는 사리를 분별하는 눈을 가졌고, 우매자는 분
별없이 흑암 속을 걷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은 해 아래의 인간 지혜가 가진 절대적 한계를 직

면하게 되었습니다.

“[전 2:14-15] ...그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탁월한 철학자나 지혜자라 할지라도 결국 우매자와 똑같이 죽음이라는 절대적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지혜도, 우매함도 평준화되며 망각의 심연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해 아래의 지혜는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과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혜는 결국 죽음 앞에 무릎 꿇는 어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미련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참 빛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유한한 인간의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전 2:17]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

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이로다

[전 2:18]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전 2:19]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라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 2:20]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전 2:21]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전 2:22]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라

[전 2:23]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 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 2:24]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전 2:25] 당신보다 먹고 즐기는 일에 누가 나보다 뛰어나랴

[전 2:26]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

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은 삶의 깊은 회의와 허무감 속에서 생을 탄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 2:17]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여기서 '한하다' <사네>입니다. 그 의미는 '미워하다', '싫어하다'를 뜻합니다. 일평생 이룩한 모든 업적과 재물을 죽음 이후에 남겨진 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내 뒤를 이을 후계자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 수 없으며, 자신이 땀 흘려 쌓아 올린 유업을 한순간에 탕진할 수도 있다는 현실은 인간의 모든 성취를 덧없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사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우매함으로 인해 왕국은 둘로 분열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인간의 세속적 노동과 소유권은 영속성을 지니지 못하며, 밤낮으로 근심과 슬픔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고백은 단순한 절망과 냉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시선을 '해 아래'의 닫힌 세계에서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전 2:24]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쥐어짜 내는 쾌락은 공허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서 허락하시는 소박한 은혜와 안식은 참된 선물이 됩니다. 일상의 먹고 마심과 정직한 노동의 열매를 누리는 기쁨은 인간의 탐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은혜의 손길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를 고백합니다.

"[전 2:26]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이 은혜로 기뻐하시는 언약 백성에게 참된 지혜와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반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끝없는 탐욕과 축재는 결국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그분의 백성을 위한 도구로 쓰일 뿐, 그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원한 소득이 되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평생의 실패와 허무를 통과하면서, 구원과 영원한 안식은 인간의 공로나 소유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안에 있음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만이 참된 쉼과 영원한 분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모신 심령 속에서만, 우리의 일상과 수고는 헛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

[전 3:1]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전 3:2]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전 3:3]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전 3:4]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전 3:5]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전 3:6]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전 3:7]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전 3:8]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정해진 시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범사'라는 히브리어 <콜>은 '모두', '전체', '완전함'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기한'이라는 히브리어는 <제만>으로, '정해진 때'를 뜻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겪는 다양한 경우의 시기들을 나열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2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3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4절)"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5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6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7절)"

그렇다면 이 모든 정해진 '때'는 누가 정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그 '때'를 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정하려 할 때 종종 실패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잠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

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시기와 상황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분의 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며, 그분이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 3:9]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전 3:10]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솔로몬은 일하는 자의 수고에는 이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한 이유는 그의 삶에서 그 어떠한 이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의 수고에 대한 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수고와 곤고와 피곤과 지침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노고'<인안>를 주셔서 애쓰게 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노고'<인안>

>은 '일', '직업', '업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업을 갖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일하느라 참으로 수고하며 애를 씁니다. '애쓰게 하신 것' <아나>는 '~ 하기에 바쁘다'란 뜻 외에 '괴롭게 하다', '천하게 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은 일로 인해 스스로 천한 단계로 내려갑니다. 마치 하나님은 인간을 노예화 시킴으로 사람들은 죽도록 일만 하고 하나님과 천사들은 편안하게 쉬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솔로몬의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형벌입니다.

"[창 3:17-19]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 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지만 일을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고 심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노동은 충분한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삶의 질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만족감도 가져다 줍니다. 솔로몬의 부정적인 시각은 그 스스로를 더욱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솔로몬은 많은 수고를 하였을지라도 결코 수고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되었습니다.

“[전 3:13]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전 3: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 3:12]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전 3:13]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전 3:14]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

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 3:15]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전 3: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봄에는 봄이라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아름답습니다. 가을은 가을이라 아름답고 겨울은 겨울이라서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봄이 싫고 여름이 싫습니다. 가을이 싫고 겨울이 싫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지만, 사람에 따라 아름답기도 하고 싫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 3:11] ...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은 누구나 영원을 사모합니다. 그 마음이 있기

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살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아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올 것 같아도,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측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 3:11] ...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두 이해한다면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겠습니까? 만일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 어떤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측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록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측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도 아름답

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는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 3:14]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전 3:14] ...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다만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행복을 얻으면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관여하거나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경외심을 표할 뿐입니다.

“[전 3:14] ...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이전에 있었던 것

들입니다.

“[전 3:15]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역시 예전에 이미 누군가가 가졌던 것이고, 우리가 취하는 모든 것도 이전에 이미 누군가가 취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아웅다웅 싸울 필요도 없고, 근심 걱정할 필요도 없으며, 더 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취하며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 3:16]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전 3:17]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전 3:18]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전 3:19]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

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 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
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
다

[전 3:20] 다 흠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흠으로 돌
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전 3:21]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 3:22]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
것이 그의 분복임이라 그 뒷일을 보게 하려고 저
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솔로몬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악이 존재한다는 사
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재판하는 곳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악이 있음을
말합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재판에서 악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모든 삶 가운데 악이 더했으
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삶 가운데 악이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의
수준이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솔로몬은 주장합니다.

“[전 3:18] ... 저희로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그의 주장을 입증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그는 사람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짐승도 그와 같이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3:19]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니...”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짐승도 죽습니다. 사람이 호흡하며 삽니다. 그런데 짐승도 호흡하며 삽니다. 사람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짐승도 먹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전 3:19] ...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헛됨’<헤벨>이라는 말은 ‘증기’, ‘숨’, ‘헛됨’을 뜻합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한 순간에 사라집니다. 마치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어차피 죽어야 할 인생이기에 삶 속에 누리는 모든 것이 헛되고 삶 속의 취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흙에서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전 3:20]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러나 정녕 솔로몬의 말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짐승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짐승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짐승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짐승을 사랑하여 짐승을 사람처럼 대하고 식구처럼 대우를 할지라도 사람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이 없으면 사람이 짐승되고 짐승이 사람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유명한 구절로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 3:21]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서 언급되는 '혼' <르아흐>은 '영'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언급하면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겠느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영'인데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갈까요? 그것은 사람과 짐승이 등급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세계는 등급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이 세상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등급이 있으며, 많이 배운 자와 덜 배운 자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등급차이는 천국의 등급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등급이 있습니다.

“[고전 15:41]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처럼 사람의 등급과 짐승의 등급이 다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신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천사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믿는 자의 부리는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 1:14]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즐거움을 만끽하며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 물질로 즐거움을 누린다면 더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연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즐거움을 누린다면 더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런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전 3:22]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감사하며,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

[전 4:1]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 4:2] 그러므로 나는 살아 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전 4:3] 이 둘보다도 오히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낫다 하였노라

솔로몬은 해 아래 학대당하는 자를 보았습니다.

“[전 4:1]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아슈크>는 ‘압제’, ‘억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 4:1] ...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전 4:2] 그러므로 나는 살아 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또한 오히려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전 4:3] 이 둘보다도 오히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낫다 하였노라”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해 아래서 억압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로자도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대’는 사실상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를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학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억압을 받고 있으며 스스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매우 통제된 감옥에 살거나 수용소에 산다

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학대는 없습니다. 비록 육적인 학대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학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때로 때린다 할지라도 그런 때림이 나의 영혼까지 때리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대는 본인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몸을 학대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떠한 학대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요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란 뜻 외에 ‘위로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때,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떠한 억압이나 압제가 없을 것입니다.

[전 4:4]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여러가지 교묘한 재주를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 4:5] 우매자는 손을 포개고 있으면서 자기 몸을 먹는도다

[전 4:6]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솔로몬은 사람들이 겪는 모든 수고와 재주가 시기를 당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4:4]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여러가지 교묘한 재주를 인하여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

다”

여기서 '재주' <키세론>은 성공과 성취, 기술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러운 시선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시기를 받을수록 그들은 힘을 잃고, 결국 일에 대한 의욕도 상실하게 됩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자신을 반영하여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세상의 성공을 거둔 인물이지만, 그 성공의 결과가 헛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하나님을 위해 진정으로 수고하고 성공했다면, 지금처럼 그런 허무한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성취로 인해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누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시기로 인해 힘들어하고, 결국 일손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우울해지고 무력해지며, 때로는 살기조차 싫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많은 일을 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헛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

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도 옆에서 시기하는 이들 때문에 괴롭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사람들을 '우매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쓸데없는 시기와 질투로 인해 자신을 소모할 뿐입니다.

“[전 4:5] ... 자기 몸을 먹는도다”

그는 또한, 열심히 일하며 고통받는 것보다 적당히 일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강조합니다.

“[전 4:6]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 구절에서 '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이 특이합니다. '한 손'(카프)은 편안한 손바닥을 나타내며, '두 손'(호펜)은 많은 것을 움켜잡으려는 주먹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도하게 움켜잡으려 하고, 누군가를 때리고 싶어도 주먹을 꼭 쥐고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있도록 주먹을 쥐고 힘을 모으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손을 풀고 힘을 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상처조차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주먹을 쥐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전 4:7]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다

[전 4:8]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또한 눈으로는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전 4:9]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전 4:10]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 4:11]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전 4:1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

느니라

솔로몬은 또 다른 헛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홀로 사는 사람의 수고로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삽니다. 오늘날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어서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홀로 살고 싶어서 홀로 사는 것입니다. 형제와의 연락도 끊은 채 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사람의 수고로움은 헛되다고 단언합니다.

“[전 4:8] ... 나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실상은 어떻게 하다 보니 가족과 헤어져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와 가족이 전혀 없이 홀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일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놀러 가는 시간조차 가지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도무지 행복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 4:9]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맞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사람이 일을 하면 그 보상은 두 배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일하면 생활이 더 풍요로워지게 마련입니다. 물론,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는 더 잘 살고, 자신이 능력을 가지고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능이 많고 혼자 사는 것이 좋다 하더라도, 힘든 순간에 누군가 함께 있어 준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 곁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 4:10]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서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서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홀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이입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 주지 않고 힘든 순간을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먹고 사는 것이 항

상 어려운 사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함께 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전 4:11]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할지라도 두 사람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혼자서 싸우는 것보다 둘이 하나가 되어 싸울 때 힘이 생기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둘이 함께하면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중요한 단서를 남깁니다.

“[전 4:12] ...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유대인에게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세 겹 줄'은 두 겹 줄보다 훨씬 더 완전한 수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단순히 두 겹 줄에 그치지 않고 세 겹 줄이 됩니다. 세 겹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홀로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 자는 사람도 결코 혼자 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따뜻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전 4:13]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전 4:14] 저는 그 치국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으나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전 4:15]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치리함을 받는 후속 젊은이와 함께 있으며

[전 4:16] 저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찌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힘든 삶을 경험하며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전 4:14] ...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니라”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가 가장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지혜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지혜가 빛을 발하여 왕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지혜가 있다

면 누구나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지혜가 있으면 상황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젊은이가 지혜로 왕이 되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늙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늙으면서 또 다른 젊은 지혜자가 나타나 새로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가 열심히 일해 성공을 이루면, 그 후에 늙고 나면 새로운 젊은이가 그 자리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봅니다.

비록 그 젊은이가 왕이 되어 백성을 잘 다스렸을 지라도, 그 이후에 등장하는 후계자 때문에 백성의 신임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다가 나이가 들면 그 사랑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 현실을 겪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은 주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비록 늙었을지라도 매일 새롭게 살아갑니다. 겉사람은 늙어가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젊어집니다.

“[고후 4: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늘 젊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자리를 누군가에게 넘겨주었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행복을 가져다줄 수 없고, 일시적인 도움밖에 주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그 어떤 것 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헛된 여정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감옥에 있어도 행복하고, 왕이 되어도 행복하며, 늙어서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더라도 여전히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몰라줘도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전도서 5장 =====

[전 5:1]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찌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전 5:2]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 5:3]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발을 삼가야 합니다.

“[전 5:1]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찌어다...”

‘삼가다’<샤마르>는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조심하다’, ‘신중하다’의 뜻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갈 때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출 3:5]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하신 이유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그 어디나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조심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뛰어다니거나 세상의 탐욕이 가득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시끄럽게 음담패설을 늘어놓아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수 5:15] 여호와와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당시 여호수아는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야 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신을 벗어야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날 수 있음

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신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하였습니다.

“[전 5:1]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어떤 사람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을 듣는 자를 더 기뻐하십니다. 마르다를 보십시오. 마르다는 말씀보다는 집안 일을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듣기를 즐겼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더 기쁘게 여겼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눅 10:39]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눅 10:40]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눅 10:41]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눅

10:42]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전 5:2]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것은 기도와 관련된 말이고, 서원과 관련된 말입니다. 기도할 때 조금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원을 할 때 함부로 입을 열거나 조금히 소원을 약속하게 된다면 난처한 일을 당하게됩니다. 우리가 소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급한 마음에 소원을 하였지만 정작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할 때는 오히려 소원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말이 많으면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말이 많으면 우매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전 5:3] ...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하지 않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란 말이 있듯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자는 우매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말의 수를 줄이고, 경청하는 자세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 경외함으로 인해 더욱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경외감을 통해 그분의 뜻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진리에서 늘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지혜로움과 함께 신앙의 깊이를 더해 줄 것입니다.

[전 5:4]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전 5:5]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전 5:6]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마라 사자 앞에서 내가 실수하였더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인하여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전 5:7]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찌니라

솔로몬은 서원한 것을 빨리 갚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전 5:4]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서원을 더디게 갚는 자를 솔로몬은 우매자로 여겼습니다. 서원을 하고 갚지 않는 것은 오히려 서원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강조합니다.

“[전 5:5]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어떤 사람은 서원을 너무 자주 하고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나 서원을 자주 하다 보면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잘 지키십니다. 그러

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서원을 하고서 갚지 않는 것은 범죄한 것이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전 5:6]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마라...”

그는 또한 사자 앞에서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자’는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을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한 것은, 서원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행위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원한 것을 갚지 않을 때,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가 하는 일을 멸하실 것입니다.

“[전 5:6] ...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인하여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여기서 ‘멸하다’<하발>는 ‘파괴하다’, ‘저당 잡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파괴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서원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큰 손해

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원기도를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이러한 교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원은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며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의무는 하나님의 앞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중함을 가지고 서원하며, 그 서원을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 5:8]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것을 볼찌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솔로몬은 어떤 권세자가 빈민을 학대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전 5:8]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것을 볼찌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솔로몬이 이같이 권한 이유는 빈민을 학대한 권세자 위에 또 다른 권세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

다.

“[전 5:8] ...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우리는 어떤 권세자가 빈민을 학대할 때 이것을 불의로 여기고 그 권세자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한 행동을 자제하라고 권합니다. 그 이유는 그 권세자 위에 또 다른 권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권세자가 악을 행할 경우, 그 위의 권세자가 그 악한 권세자를 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위의 권세자 또한 똑같이 악을 행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간과하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러나 인간의 해결책은 종종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심각한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입니다. 인내는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온전하게 해결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

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시고, 그에 맞는 정의와 공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시간과 방식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 5:9] 땅의 이익은 못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전 5:10]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 5:11]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임자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전 5:12]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전 5:13]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전 5:14]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남아지지 아니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전 5:15]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전 5:16]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전 5:17] 일평생을 어두운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
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솔로몬은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하였습니다.

“[전 5:9] 땅의 이익은 못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정해진 소산물이 있으며, 백성도 정해진 소
산물이 있습니다. 왕이 더 많은 소산물을 가진 것
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 각자는 하나님
이 주신 소산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은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이 가진 은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금을 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을 보았기 때
문입니다.

풍요로워지길 원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에게 주어
진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어진
소득으로 만족할 때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 재산으로 인해 오히려 풍요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그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많아지면 가정부도 필요하고, 운전기사도 필요합니다. 결국 재산이 많다고 보여도 실질적인 유익은 줄어둘 수 있습니다.

“[전 5:11]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니 그 임자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따라서 솔로몬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잠을 잘 자지만,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전 5:12]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 재산으로 인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쳐올 때, 재산이 많았던 사람은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

은 이미 늘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어 큰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로몬은 재산이 많은 자들이 일평생 어두운 데에서 먹고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를 안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전 5:17] 일평생을 어두운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이처럼 솔로몬의 교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통찰을 제공합니다.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진정한 만족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신뢰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물질적 욕심을 경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기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 5:18]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전 5:19]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

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 5:20]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의 기뻐하는 것
으로 응답하심이라

솔로몬은 인생의 진정한 낙은 스스로 낙을 누리
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 5:18]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
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
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여기서 ‘보다’<라아>는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
다’란 뜻입니다. ‘낙을 본다’는 말은 스스로 만족함
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가난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를 바라보며 스스로 만족해하는 사람
은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반면, 부자일지
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소유에 대해 만족하지 못
한 사람은 악하고 추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은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재
물과 부요함을 주십니다. 그 양이 많은 적든, 하나
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몫을 받아 즐거워하길
원하십니다.

“[전 5:19]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기뻐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그로 인해 생의 날들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전 5:20]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의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생각하다’<자카르>는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인생의 후회와 염려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후회가 많고 염려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시며, 우리가 이를 누리도록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

나눔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신의 환경과 소유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6장 =====

[전 6:1] 내가 해 아래서 한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컴컴하게 하는 것이라

[전 6:2] 어떤 사람은 그 혼의 모든 바라는 것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전 6:3]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찌라도 그 혼에 낙을 족하게 누리지 못하고 또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나니

[전 6:4]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전 6:5] 일광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더 평안함이라

[전 6:6]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찌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보게 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전 6:1] 내가 해 아래서 한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컴컴하게 하는 것이라”

‘무겁다’<라브>는 ‘풍성한’, ‘증가하는’ 뜻으로, 여기서는 ‘무겁게 압박하다’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 6:2] 어떤 사람은 그 혼의 모든 바라는 것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재물과 부요와 존귀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는 오늘날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 열심히 힘쓰고 있습니다. 부요함과 존귀를 가진 것

은 실로 큰 축복 아닙니까?

여기서 언급된 '재물' <오셰르>와 '부요' <네케스>는 거의 비슷한 단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셰르>는 마음이 행복하고 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케스>는 돈이나 땅처럼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많은 <네케스>를 가졌지만 <오셰르>는 없었다는 말은 재산은 많았지만 참된 행복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재물과 부요함을 가진다는 것은 재산도 많고, 만족과 행복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환영까지 받는다면 이는 실로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나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다니,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 중 일부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지만,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너무나 억울할 것이고, 삶은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 다른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낙태된 자가 더 나은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전 6:3]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찌라도 그 혼에 낙을 족하게 누리지 못하고 또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나니”

100명의 자녀를 가진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기쁨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장수했다면 이는 더욱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안장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삶은 허망합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한 곳'으로 갈 뿐입니다. 그 '한 곳'은 죽음입니다.

“[전 6:6] ...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죽음은 인생의 끝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행복이 없다면 그 인생은 죽음과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살아 있으나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소유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찾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을 진정으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질적 소유는 일시적이며,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유의 풍요 속에서도 깊은 공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바르게 인식하고 감사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비로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며, 주신 것을 타인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입니다.

솔로몬의 경고는 우리가 물질적 축복에만 얽매이지 말고, 영적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심에 두라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것을 나누고 누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부요와 행복의 길입니다.

[전 6:7]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전 6:8]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나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가

[전 6:9]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 6:10]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룰 수 없느니라

사람은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자기의 입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식욕을 채울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전 6:7]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식욕'은 히브리어 <네페쉬>로 '생명' 또는 '영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생명'이 '식욕'과 연관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네페쉬>는 종종 '영'의 대체어로 사용되며, 이는 매우 흥미로운 점입니다. 이 구절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영혼은 채울 수 없느니라"로 해석됩니다. 즉,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그 사람의 참된 욕구, 즉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 6:8]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그는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란, 행하지 않는 지혜자보다 나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가난한 자도 지혜자나 우매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이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이유입니다. 또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설사 가난하다 할지라도 행동하는 자가 지혜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신을 지혜자라 생각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자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또한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조차 헛되어 바람을 잡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 6:9]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기서 솔로몬은 공상의 가치를 간과했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공상하는 것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며, 상상력을 통해 공상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상' <할라크>는 '걷다', '이리저리 다니다'라는 뜻을 지니며,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방면으로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상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말들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만족을 재고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의 삶을 여는 열쇠입니다.

[전 6:11]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일이 많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전 6:12]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슨 낙이 있는 줄을 누가 알며 그 신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솔로몬은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전 6:11]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일이 많나니...”

솔로몬은 이러한 일들이 모두 헛되고 유익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일들' <데바림>은 '일' 또는 '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헛된 것을 더하는 일이나 말은 전혀 유익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 그러한 일과 말을 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더 많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선포의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포는 헛된 것을 유익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말들이 있어야 합니다.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고,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헛된 일이나 말을 늘어놓기보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즉, 삶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를 통해 유익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수고와 말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분의 사랑을 전파하는 도구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헛된 것이 아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더욱 헌신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일을 더 많이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전도서 7장 =====

[전 7:1]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맞서며

[전 7:2]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전 7:3]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솔로몬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전 7:1]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좋은 이름, 그것은 사람이 남기는 명성입니다. 좋은 기름은 물질적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름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죽음 이후에 사람들에게 남는 좋은 명성이 훨씬 더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전 7:1] ...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맞서며"

어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겠습니까?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습은 얼마나 처연하고 안타까운지요. 반면, 막 태어난 아이를 보십시오. 그 순수한 생명은 얼마나 기쁘고 감동적인지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죽는 것이 출생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인생의 헛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결국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죽음이 출생보다 낫다고 여긴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의 끝이 초상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전 7:2]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사람의 끝이 죽음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히 삽니다.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며,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결코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요 6:51]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

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하지만 솔로몬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에, 결국 인생의 헛됨만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임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에 휩싸이십니까?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십니까? 지나온 날들이 모두 헛된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다고 덧붙입니다.

“[전 7:3]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어찌하여 그는 이렇게 말할까요? 어찌하여 슬픔

이 웃음보다 낫다고 할까요? 웃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진정한 웃음을 누립니다. '웃음' <세호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한 기쁨에서 나오는 웃음이고, 다른 하나는 조롱하는 웃음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 웃었을 때, 그 웃음은 기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창 21:6]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러한 웃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웃음이 많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웃음이 아닙니다. 쾌락이나 일시적인 기쁨에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기쁨에서 나오는 웃음입니다. 이런 웃음은 슬픔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웃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락의 웃음을 주십니다.

"[사 61: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

나라”

하나님께서서는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 <샤손>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쁨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은 날아갈 듯 가벼워지고, 신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왜 이런 웃음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부모를 두었고, 가장 많은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웃음을 잃습니다. 그들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슬픔의 옷을 입고, 슬픔의 음식을 먹습니다. 슬픔의 화장을 하고, 슬픔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넘쳐흐르고, 그들의 삶은 기쁨으로 빛납니다.

당신은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면, 모든 슬픔과 허무함이 기쁨과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전 7:4]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전 7:5]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전 7:6] 우매자의 웃음 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 무의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솔로몬은 지혜자와 우매자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지혜자는 초상집을 좋아하지만, 우매한 자는 혼인집을 찾습니다.

“[전 7:4]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초상집이 혼인집보다 더 나은 이유는 죽음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혼인집에서 하나님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혼인집에서는 먹고 마시는 정욕이 넘쳐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직시하고, 영원한 진리를 탐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자는 사람의 책망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놀고 먹고 떠드는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

습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사람의 책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고 먹고 떠드는 쾌락에 빠져 즐거워합니다.

“[전 7:5]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자의 책망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성찰하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합니다. 반면, 우매한 자들의 노래는 일시적인 즐거움을 줄 뿐, 결국 허무함만 남깁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의 책망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혜자는 죽음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책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러나 우매한 자는 세상의 쾌락에 빠져 허무함만을 남깁니다. 당신은 지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매한 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혜의 길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 영원한 진리로 이끌어 줍니다. 우매한 자의 길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보이지만, 결국 허무함만을 남길 뿐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지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비록 좁고 힘들지라도,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기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전 6:7]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전 6:8]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전 6:9]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 6:10]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룰 수 없느니라

사람은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자기의 입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식욕을 채울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전 6:7]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식욕'은 히브리어 <네페쉬>로 '생명' 또는 '영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생명'이 '식욕'과 연관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네페쉬>는 종종 '영'의 대체어로 사용되며, 이는 매우 흥미로운 점입니다. 이 구절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영혼은 채울 수 없느니라”로 해석됩니다. 즉,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그 사람의 참된 욕구, 즉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 6:8]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그는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란, 행하지 않는 지혜자보다 나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가난한 자도 지혜자나 우매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이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이유입니다. 또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설사 가난하다 할지라도 행동하는 자가 지혜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신을 지혜자라 생각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자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

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또한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조차 헛되어 바람을 잡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 6:9]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기서 솔로몬은 공상의 가치를 간과했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공상하는 것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며, 상상력을 통해 공상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상' <할라크>는 '걷다', '이리저리 다니다'라는 뜻을 지니며,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방면으로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비록 상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말들은 우리가 세상에서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만족을 재고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의 삶을 여는 열쇠입니다.

[전 7:11] 지혜는 유업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전 7:12]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가 완전한 자를 삼게 함이니라

[전 7:13]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은 세상의 정욕에서 비롯되며, 남의 것을 탐내고 빼앗으려는 욕심입니다. 특히 뇌물은 지혜자의 명철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전 7:7]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케 하느니라"

탐욕은 지혜자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뇌물은 그의 명철을 흐리게 합니다. 지혜자는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탐욕과 뇌물은 그를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결국 우매한 자로 전락시킵니다.

또한 급한 마음도 지혜자를 우매자로 만듭니다. 급한 마음은 쉽게 화를 내게 하고,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우매한 자입니다.

“[전 7:9]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은 인내를 잃게 하고, 분노를 불러일으
킵니다. 분노는 우매한 자의 특징이며, 그것은 지
혜를 파괴합니다. 지혜자는 침착하고 인내하며,
상황을 신중히 판단합니다. 그러나 급한 마음은
그를 우매한 자의 길로 이끌어, 결국 후회와 실패
를 초래합니다.

탐욕과 급한 마음은 지혜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지혜를 무너뜨리고, 우매함으로 빠
지게 합니다. 지혜자는 이러한 유혹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당신은 탐욕과 급한 마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
까? 지혜를 잃고 우매한 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지
켜주시고, 진정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잠 4:23]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탐욕과 급한 마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지혜와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전 7:14]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 7:15] 내가 내 헛된 날을 지내는 동안에 내가 그 두 가지 일을 보았으니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전 7:16]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전 7:17]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전 7:18]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전 7:19]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전 7:20]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전 7:21] 무릇 사람의 하는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전 7:22]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이 아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삶에 '형통'과 '곤고'라는 두 가지 색깔을 병행하여 그림을 그리십니다. 어떤 때는 형통함이 있고, 어떤 날은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기쁨이 넘치고, 곤고할 때는 슬픔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곤고한 날이 올 것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 너무 자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형통할 때 영원히 그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시며, 우리가 장래 일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전 7:14]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할 때는 감사하며, 곤고할 때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형통의 날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교차하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솔로몬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스스로 패망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7:16]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우리는 의인이 되려고 애씁니다.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아도 모든 상황이 의롭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의로움 때문에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혜자가 되려고 애쓰지만, 지혜가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인생이 얇히고 꼬이게 됩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되, 의롭게 살지 못한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의롭게 살면서도 의롭지 못한 사람을 멀리하면, 결국 무인도에 홀로 남게 됩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좋지만, 무인도에 사는 것은 고립된 삶입니다. 우리는 지혜자로 살되, 우매한 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매자를 어리석게 여기면, 결국 그들을 잃게 됩니다. 때로는 우매자가 뜻밖의 가치를 드러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한 전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7:17]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동시에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완벽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인된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솔로몬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말합니다.

“[전 7:20]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맞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롬 3: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

며”

우리는 스스로를 겸손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형통할 때는 감사하며, 곤고할 때는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의롭게 살되, 의롭지 못한 자를 품어야 합니다. 지혜자로 살되, 우매한 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통과 곤고를 통해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시고, 완전한 모습으로 이끌어가십니다. 당신의 삶에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러면 형통과 곤고의 모든 순간이 의미 있는 그림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전 7:23]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전 7:24] 무릇 이미 있는 것은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라

[전 7:25]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우매한 것이요 우매한 것이 미친 것인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 7:26]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전 7:27]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알이 살피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전 7:28]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내가 이 모든 여자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
느니라

[전 7:29] 나의 깨달은 것이 오직 이것이라 곧 하
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죄를 낸 것이니라

솔로몬은 스스로 지혜자가 되기 위해 애를 썼던
솔로몬은 지혜자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지혜가 완
벽하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지혜는 인간의
한계를 넘지 못했고, 결국 그는 진정한 지혜가 무
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 7:23]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
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어쩌면 당신도 솔로몬처럼 스스로 지혜자로 살려
고 애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리 지혜롭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결코 완벽하지 않으
며, 진정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

다.

솔로몬은 심각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지혜자를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펴보았지만, 여인들 중에서는 지혜자를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 7:28]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내가 이 모든 여자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자가 남자보다 지혜가 많다는 것을 왜 그는 알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여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만난 여인들은 대부분 방탕한 여인들이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잔칫날에 함께하는 여인들에게서 지혜자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여인에게서 진정한 지혜를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 솔로몬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여인을 만났다면, 그의 생각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여인을 만났다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인에 대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헛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고 해도, 여인에 대한 차별적인 생각은 그가 여전히 우매자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지혜는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데서 나옵니다. 솔로몬의 실수는 그가 진정한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잊고, 세상적인 지혜에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잠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는 솔로몬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성별이나 세상적인 지식과는 무관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지혜자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당신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시고, 세상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통찰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8장 =====

[전 8:1]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해석을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전 8:2]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전 8:3]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히 마며 악한 것을 고집하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전 8:4]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전 8:5]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만나지 아니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변하나니

솔로몬은 지혜가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하고, 그 사람의 얼굴에 서려있던 사나운 모습이 변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8:1]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솔로몬은 이어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권고합니

다.

“[전 8:2]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여기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또한, 그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악한 일을 행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8:3]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히 마며 악한 것을 고집하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솔로몬의 이러한 말들은 때때로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백성들이 왕에게 복종하도록 강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지혜를 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도 지혜가 주어집니다.

“[욥 28:28] 또 사람에게 이르셨도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로부터 경외함을 얻으려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솔로몬 역시 이러한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습니다. 이는 십계명 중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네 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출 20:7]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인간의 권력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실 수 있으며,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평안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 8:6] 무슨 일에도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전 8:7]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

[전 8:8]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행악자를 건져
낼 수는 없느니라

솔로몬은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어서, 사
람이 그 때와 판단을 잘 알지 못하면 화를 당한다
고 말했습니다.

“[전 8:6]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여기서 '무슨 일' <헤페츠>는 '기쁨', '즐거움'을 의
미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
고자 할 때에는 그에 맞는 때와 적절한 판단이 필
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삶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
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때를 알고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해 결
국 화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화' <라>는 '나쁜', '악한 것', 즉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장래일을 알지 못해 겪는 고난이 많습니다. 만일
사람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다면, 훨씬 고
난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며,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도 모르며,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무지 때문에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답답함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마귀 자신에게 이끌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자신에게 오도록 유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가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최종 운명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운명을 가진 자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멸망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 8:9]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전 8:10]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지낸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을 떠나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 8:11]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 8:12] 죄인이 백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전 8:13]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은 악인의 삶이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해롭게 하지만, 결국 그들이 죽은 후에는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니 그들의 삶은 헛

된 것이라고 전합니다.

“[전 8:10]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지낸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을 떠나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들이 악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임하는 형벌이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8:11]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만약 악인들에게 형벌이 즉각적으로 임한다면, 그 누구도 악인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형벌이 없기에 악인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왜 악인의 형벌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악인에게 형벌을 내릴 때 선한 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아버지에게 형벌을 가할 때 그의 선한 자녀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까지 함께 뽑힐 것을 우려하는 것

과 같습니다.

“[마 13:29]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악인은 결국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도 못합니다. 언뜻 보기에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결국 악인은 선인보다 잘 되지 못합니다.

“[전 8:13]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

이러한 솔로몬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일시적인 현상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고, 견고한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 8:14]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

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 8:15]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전 8:16]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전 8:17] 내가 또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 본즉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찌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찌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이 악인처럼 형벌을 받을 때가 있고, 악인이 의인처럼 상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8:14]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불공평함을 한두

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악인처럼 형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처럼 상을 받는 악인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때로는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살고, 더 안락한 삶을 누리는 모습이 불공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눈이 불공평함에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것을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러한 불공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의인보다 더 상을 받는 악인의 모습을 보고 억울해 한다면, 결국 악인이 의인보다 더 나은 조건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8:15]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딤후 6:6]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공평한 일들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전 8:16]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세상의 불공평한 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결국 그 해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지라도, 사실은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하며, 불공평에 마음을 두면 오히려 자신도 불공평한 삶에 끌려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된다면,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힘겹게 알아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이며,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지혜가 당신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전 8:17] 내가 또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 본즉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찌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찌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서 9장 =====

[전 9:1]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 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의 일임이니라

[전 9:2]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일이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제사를 드리는 자든 드리지 않는 자든, 그 결과는 결국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수많은 사건과 결과들이 하나같이 무의미하고, 결말 또한 허무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전도서 전반에 깔려 있는 그의 인생관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내면 깊은 탄식을 반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 9:1]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솔로몬의 이 고백은 일견 지혜롭게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지 미워하실지 알 수 없다고 말한 그의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멀리 계신 창조주나 왕이 아니라,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다윗과 밋세바의 아들로 태어나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그의 자녀 또한 사랑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짐승조차 자기 새끼를 아끼고 돌보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여전히 멀리 계신 신, 섬겨야 할 존재, 나와는 거리감 있는 절대자로 인식했던 듯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했지만, 아버지로 사랑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가 그토록 허무하고 안개 같고, 체념으로 가득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두려움의 대상이자 섬겨야 할 존재로만 여긴다면,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마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 9:2]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곧 의인과 악인,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맹세하는 자와 맹세를 두려워하는 자 모두에게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의와 자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의 의미와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는 동일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일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 비관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체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차피 다 헛되니 무슨 소용이냐”는 말만 되뇌며, 영혼까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

시며,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의로운 자의 눈물도, 선한 자의 작은 헌신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분명히 의인을 향해 있고, 그분의 마음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울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허무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일이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전 9:3]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전 9:4] 모든 산 자 중에 참여한 자가 만덕 유망함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전 9:5]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바 됨이라

[전 9:6]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히 분복이 없느니라

솔로몬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 9:3]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그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그 마음 자체에 악이 가득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결국, 평생토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람이 평생토록 악한 마음만 품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물론 인간의 마음에는 악한 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양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선을 추구하려는 의지도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에, 그 마음 안에는 악함만이 아닌 하나님의 흔적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어두운 시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이었을까요? 그는 도대체 어떤 절망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쏟아낸 것일까요?

솔로몬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 9:4] 모든 산 자 중에 참여한 자가 만덕 유망함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이 표현은 겉으로 보기에 현실적인 지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개’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가장 천하고 더러운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 ‘사자’는 용맹과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살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리 천한 개라도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는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절대적인 파멸로 여겨졌던 그의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살아 있기만 하면 죽은 자보다 나은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솔로몬의 말은 옳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영광을 알지 못했기에,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은 지나가고, 눈물은 닦이게 될 것입니다.

“[계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의 삶보다 훨씬 복된 곳,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시는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전 9:7]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전 9:8]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찌니라

[전 9:9]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전 9:10] 무릇 네 손이 일을 얻는대로 힘을 다하여 할찌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솔로몬은 살아 있을 때 기쁨을 누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전 9:7] ...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정녕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슬픔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해서 먹고 마시는 잔치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사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

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날 기독교인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물론 마시더라도 그게 죄가 될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기독교인은 술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술이 싫어서 즐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부러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히려 마음껏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혹 당신도 솔로몬처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에게 의복을 희게 하며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말라 권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는 것은 명절 때나 그렇게 입습니다. 흰 옷을 입고서는 일하기 곤란합니다. 머리에 향 기름을 바르는 사람은 제비족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일반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멋부리는 행위입니다. 솔로몬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머리에 좋은 향 기름을 바를 여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나가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을 구할 것입니다. 향락에 빠져 살 시간이 필요한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권하

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전 9:10] ...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가 우리더러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권한 것은 죽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잊혀지고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살아 있을 때 눈에 보이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혹 당신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배우자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삶이 오히려 죽음을 극복할 수 있으며 사후 세계를 잘 준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 그는 염세주의자이며 비관주의자이며 심한 우울증 환자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의 생각을 따르게 된다면 당신 역시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솔로몬 그는 정상입니다. 결코

양은 왕이고 겉모양은 지혜가 많은 자였으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으나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 적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는 지금 스올에 빠져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낙원에 거하지만 그는 음부에 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가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이 결국은 그를 음부에 갇히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전 9:11]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전 9:12]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전 9:13]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전 9:14]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왕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흥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전 9:15] 그 성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

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전 9:16]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 하였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전 9:17] 종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전 9:18]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괴케 하느니라

솔로몬은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반적으로 어둡고 염세적이었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사람을 보고서도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용맹한 사람을 보면서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반드시 풍족하게 사는 것은 아니며, 명철한 자가 반드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 있는 자가 반드시 사람들의 은총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이들도 결국 '때'와 '기회'를 만나지 못하면 시기와 고난을 겪게 된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이것은 지혜자의 통찰이라기보다는 깊이 묻든 부정적 사고의 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도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 사로잡히면, 현실 속 모든 상황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착한

사람도 악하게 보이고, 선한 일조차 삐딱하게 해석됩니다. 감사함이 사라지고, 대신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늘 부정적인 말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이는 솔로몬의 그림자 속에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는 이름도, 배경도 분명히 알 수 없는 인물이었지만, 솔로몬의 기억 속에 인상 깊게 남아 있었던 듯합니다. 작은 성읍에 살던 이 가난한 지혜자는 강대한 왕의 공격을 받던 성을 그의 지혜로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고 솔로몬은 탄식합니다.

“[전 9:15] ...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단어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마땅한 보상이나 명예를 주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그는 영웅 대접을 받지 못했고,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했기 때

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 가난한 지혜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면, 그는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성읍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이며,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가난했을지라도,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칭찬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보상으로 넉넉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삶의 진정한 가치와 하늘의 상급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지혜자의 슬픔이며 동시에 그의 한계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에, 하늘의 시선을 잃어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전 9:18] ...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괴케 하느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은 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의 신을 따라가며,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길로 끌어갔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죄로 인해 혼란과

영적 타락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말로는 지혜를 외쳤지만, 삶으로는 그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지 못한 채 땅만 바라보던 물질주의자였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갔던, 철저히 이 세상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나 역시도 솔로몬처럼, 하늘의 것을 잊은 채 세상의 기준에 얽매어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지혜는 많되,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지혜가 다시 살아나길 기도합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감사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지혜 말입니다.

전도서 10장 =====

[전 10:1] 죽은 파리가 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전 10:2]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전 10:3]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모자라서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를 말하느니라

솔로몬은 지혜와 우매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는 향기로운 기름 한 병이라도 죽은 파리 하나로 인해 악취가 나는 것처럼, 우매한 자 한 사람으로 인해 지혜와 존귀가 난처해지고 무거워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작은 우매함이 큰 가치를 망칠 수 있다는 경고이며, 곧 인생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교만과 무지가 어떻게 아름다움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난처하게 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카르>는 본래 ‘더 무겁게 하다’는 뜻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어 균형이 깨지고 곧 넘어지게 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 10:2]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오른쪽’은 성경에서 능력, 권세, 보호의 자리로 자주 등장하며,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과 인도, 그리고 승리의 상징이 됩니다. 반면에 ‘왼쪽’은 종종 불의, 악함, 사단의 길을 은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즉, 지혜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있지만, 우매자의 마음은 그것과 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우매한 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 10:3]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모자라서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를 말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매한 자는 자신이 말하거나 행동할 때,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스스로의 말과 태도에서 지혜가 없음을 나타내며, 그들의 삶 전체가 우매함의 증거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와 우매의 구분을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느 쪽에 기울어 있는지를 점검해

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오른쪽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왼쪽에 서서 내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가며 결국 우매한 삶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잠언과 전도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말씀을 던져줍니다. 결코 지혜는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말씀 묵상과 순종,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서기를 결단해야 하며, 그 지혜의 길은 곧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 10:4]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함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전 10:5] 내가 해 아래서 한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이라

[전 10:6]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자리에 앉는도다

[전 10:7]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전 10:8]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전 10:9]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

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전 10:10]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전 10:11] 방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무용하니라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조심스럽게 드러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전 10:4]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함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이는 현자(賢者)로서 내리는 충고입니다. 즉, 위에 있는 자가 분노하거나 부당하게 대하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참으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내야말로 허물을 덮고 관계를 지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솔로몬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와 권세를 주셨으며, 수많은 나라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큰 은혜를 입은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지도 않았고, 그를 꾸짖지도 않으셨는데도 그는 여러 번 스스로의 자리를 떠나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주권자의 분노를 받은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타락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전 10:5] 내가 해 아래서 한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이라”

이 표현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는 세상 권력자들의 오류를 비판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의롭지 않게 다스리신다는 암묵적인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매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고,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는 것,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걸어다니는 것, 이것이 ‘주권자의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즉,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에 대해 은근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우매한 자, 말 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 자신이라는 사실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가 택한 길은 지혜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고, 세상의 영광과 쾌락을 좇아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모습, 바로 그것이 우매함의 전형입니다.

이것이 우리와는 무관한 이야기일까요? 오늘날의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왜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형통한가? 왜 나는 이렇게 애써도 풀리지 않고, 세상의 불의는 그대로 존재하는가? 우리는 자신이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눈앞의 불균형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 같은 우매한 자를 이 자리에 앉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나를 높이셨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향해 허물을 논하고, 정의롭지 않다 평하며 원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바로 그 '자각'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며, 우리의 시야가 짧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뒤바

뀐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혼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불평보다 감사로, 판단보다 순종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 10:12]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전 10:13]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패니라

[전 10:14]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나

[전 10:15]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피곤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 이니라

솔로몬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입술을 비교하며, 그 차이가 곧 인생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전 10:12]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은혜의 말입니다. 하지만 우매자의 입에서는 자신을 무너뜨리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결국, 말이

그 사람의 지혜를 증명합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있지만 깊은 지혜를 품고 있고, 어떤 이는 끊임없이 말하지만 말 속에 생명도分別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 차이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런데 그는 이어서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전 10:14]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나”

여기서 솔로몬은 우매자의 특성 중 하나가 ‘말이 많음’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장래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놀랍게도 그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지혜를 자랑했고, 세상 만물에 대한 통찰을 기록하며 왕 중의 왕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쓴 책들-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모두 말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자신이 말했던 수많은 교훈들을 삶에서 지키지 못했습니다.

말은 넘쳤지만, 그는 장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종착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살았고,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이 구절들을 기록할 당시의

내면은 아마도 회한과 탄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말은 많았으나, 정작 장래를 아는 지혜는 없었다'는 깨달음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말이 많은가, 아니면 장래를 아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침묵할 줄 알고, 그 마음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반면, 우매한 자는 오늘의 삶에만 몰두하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지혜자라 여기며, 말로써 자신을 세운다 생각하지만 결국 그 말들이 자신을 삼키는 올무가 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진짜 지혜자는 조용히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스스로 우매하다고 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장래의 부활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그가 참된 지혜자입니다. 그는 말은 적지만,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으며, 그 믿음은 결코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지혜자입니까? 입술이 번지르르한 '지식자'입니까, 아니면 장래 일을 알고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고, 우리 마음을 다시 주 앞에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전 10:16]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전 10:17]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전 10:18]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

[전 10:19]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전 10:20]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솔로몬은 지혜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를 말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가 왕이 되면 그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경고합니다.

“[전 10:16]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여기서 ‘왕이 어리다’는 것은 단지 나이만을 말하

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지혜가 부족한 지도자를 뜻합니다. 지도자가 미성숙하면 나라는 불안정해지고, 백성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나마 주위에 지혜로운 대신들이 있으면 나라는 안정될 수 있지만, 만약 대신들마저 타락하여 권세와 향락에 취해 있다면 그 나라는 결국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대신들의 모습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국가의 책임을 저버린 타락의 상징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 10:17]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왕위가 정통성을 잃고 권력 다툼이나 쿠데타로 인해 세워졌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정통성이 없는 왕은 곧 나라 전체를 위태롭게 합니다. 지도자와 대신들이 타락하면 백성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나라를 위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추구할 때, 도덕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 분노는 곧 냉소가 되고, 무기력이 되고, 무관심이 되어 공동체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 10:18]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름은 모든 무너짐의 시작입니다. 집이 무너지는 것도, 나무 지붕이 내려앉는 것도,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든 구조가 무너져내리는 것입니다. 백성이 게을러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면 백성의 삶도 무너집니다. 게으름은 단순한 태만이 아니라, 영적인 무관심과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며 결국은 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전 10:20]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마음 속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 권세를 정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눈에는 부패해 보이고 부당해 보일지라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롬 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우리는 지도자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된 백성의 자세입니다. 부자를 향한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난함 때문에 부자를 미워합니다. 하지만 그 미움은 오히려 우리 자신의 가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솔로몬은 어리석은 군주와 타락한 대신들의 현실을 통렬히 지적하면서도, 그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도자의 실책과 세상의 부패를 지적하기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나라가 혼란할수록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도

자만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수 있으며,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백성만이 진정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

[전 11:1]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 11:2]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찌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솔로몬은 지혜로운 삶의 본질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게 전합니다. 그가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삶의 지혜는 단지 똑똑하게 사는 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태도, 그리고 영원한 관점을 품은 삶의 방식입니다.

"[전 11:1]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말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의 선행과 자선을 주저하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물 위에 던진 떡은 당장 사라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른 후 도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손해 보는 것 같은 일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르칩

니다.

“[행 20:35]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 의 친히 말씀하신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찌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주는 삶을 소 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알려 줍니다. 복은 ‘받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줄 때’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주 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기뻐하 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 선을 베풀되 ‘일곱에게나 여덟에게’까지 하라고요. 이 말은 곧, 조건 없이 넉넉히 베풀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재앙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미리 흘려보내며 살아가라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 늘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 만,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 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금언처럼, 홍수가 날 때 씨를 뿌리라는 말은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미래를 바라보며 행하라는 도전입

니다.

받는 것을 좋아하던 삶에서 이제는 '주는 것이 복이다'라는 하늘의 원리를 따르는 삶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물 위에 던진 떡이 돌아오듯, 하나님은 당신이 흘려보낸 친절과 자비, 헌신과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이란, 오늘 베풀며 사는 삶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넉넉히 나누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흐를 것입니다.

[전 11:3]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누우리라

[전 11:4] 풍세를 살피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전 11:5]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밴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전 11:6]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솔로몬은 인생의 복잡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지혜롭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믿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꾸준히 걸어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전 11:3]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누우리라”

이 구절은 인생의 불확실성과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신중히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자꾸 방향을 바꾸고 거처를 옮기는 삶은 겉으로는 유연해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불안정과 유혹, 미혹의 빌미가 되기 쉽습니다. “역마살”이 끼었다는 말처럼, 방향 없이 흔들리는 삶은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움직이지 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움직이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옮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예측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남쪽에 가면 안전할 것이다” 혹은 “북쪽에 가면 더 잘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불

완전한 지혜에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전 11:4] 풍세를 살피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 삶을 꿰뚫는 말입니까? 우리는 ‘조건이 더 나아지면’, ‘환경이 더 안정되면’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자꾸만 ‘타이밍’을 보다가 정작 씨는 뿌리지 못하고,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삶에 머물러 버립니다.

우리는 시작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언제나 ‘시작’을 동반합니다. 작은 씨 하나라도 뿌려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태아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시가 발달하고, 정보가 넘쳐나도 인생의 본질적인 신비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전 11:5]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밴 자의 태

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 11:6]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 가지 일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 AI의 확산,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작과 시도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뿌려진 씨는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씨를 뿌리고 또 뿌릴 뿐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시작하

십시오. 작은 씨 하나라도 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가장 아름다운 때에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전 11:7] 빛은 실로 달콤한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전 11:8]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찌
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
할찌로다 장래 일은 다 헛되도다

[전 11:9]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 11:10]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솔로몬의 말은 한편으론 모순처럼 들리지만, 그 안
에는 깊은 통찰과 경고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는 청년에게 “마음껏 즐기고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면서도, 즉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로 너를 심판
하실 줄 알라”고 덧붙입니다.

“[전 11:9]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은 마치 자유를 주는 듯하지만 동시에 매우 강한 책임의 끈을 묶어둡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대해 책임질 각오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단순히 “젊을 때 즐겨라”는 가벼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청년의 때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임을 각인시키는, 아주 무거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맥락을 이해한다면, 솔로몬이 실제로 하고자 했던 말은 “그러니 네 인생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의 삶, 특히 젊음의 시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은 특별한 시기입니다. 열정이 있고, 체력이 있고, 시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늙은 후에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많아진다 해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 뿌린 씨앗의 열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귀합니다.

”[전 11:10]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청춘이 허무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청춘이 죄와 쾌락에 빠진다면, 그것은 허무하게 사라질 뿐이라는 경고입니다. 근심과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청춘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고후 6:2]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허황되게 바라보지도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청춘을 낭비했다 해도, 지금 주님께 돌아오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젊다면,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청년의 때를 주님을 위해 온전히 드리십시오. 지금 이 순

간이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젊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특권이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기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길로, 지혜로운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도서 12장 =====

[전 12:1]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 12:2]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 12:3]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으므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전 12:4]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전 12:5]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전 12:6]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전 12:7]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솔로몬의 전도서는 마치 인생의 깊은 밤을 조용

히 통과한 노인이 마지막 숨결로 남긴 깊은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본 왕이었습니다. 지혜도 소유했고, 부와 권세, 쾌락과 명예도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후, 그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기억하라."

"[전 12:1]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나 교훈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는 살아 오며 허무를 말했고, 사람의 수고와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끊임없는 바람 같은 추구들을 바라보며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청년의 때"란 인생을 너무 쉽게 여기고, 시간은 무한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시기입니다. 삶의 방향을 묻기보다 즐거움과 욕망을 우선시하는 때이기에, 그 시절에야말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더욱 간절히 요청됩니다.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자카르>는 단순히 떠올린다는 뜻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삶에서 그것을 기준 삼아 행동하라는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태도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삶의 중심축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기억함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순간도 잊지 않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껏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모르고 지내왔다 해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당신을 아셨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창조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창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결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그분의 숨결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정의와 양심, 사랑과 고통, 자유와 책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해답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 12:7] 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돌아가다’는 히브리어 <슈브>는 단지 물리적인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다시 말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몸은 언젠가 반드시 흠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고후 6:2]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솔로몬의 마지막 권면은 단지 지혜자의 권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살아낸 자로서, 모든 것을 겪은 자로서 말합니다. 하나

님을 기억하라. 늦기 전에 기억하라. 청년이든 장
년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이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로 돌아켜야 한다. 그것이 진짜 지혜이고, 진짜 인
생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신
을 창조하신 그분께 돌아가십시오. 그 길에야말로
진짜 생명이 있으며, 그분의 품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머물 영원한 집입니다.

[전 12:8]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 12:9] 전도자가 지혜자임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
을 많이 지었으며

[전 12:10]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
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전 12:11]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
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
의 주신 바니라

[전 12:12] 내 아들이아 또 마땅히 이것들로부터 경
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전 12: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
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아다 이것이 사람의 본

분이니라

[전 12: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서, 인생을 통틀어 자신이 체득한 가장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본 자로서, 수많은 수고와 열심, 그리고 지식과 연구를 거친 후에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삶의 본질을 찾으려 애썼지만, 솔로몬은 그 어떤 학자보다 더 치열하게 삶을 살아낸 후, 단호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헛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 12:12] 내 아들이 또 마땅히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 자신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하고, 백성을 가르쳤으며, 수많은 지혜의 말을 기록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 12:9] 전도자가 지혜자임으로 여전히 백성에

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는 연구와 배움, 기록과 가르침의 중요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조차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난 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결국은 헛된 수고일 뿐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이, 모든 연구가, 모든 지식이 궁극적인 진리 대신 자기 만족이나 헛된 명예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결국 피곤함만을 남긴 채 사라져버리는 덧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 12: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찌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은 인생의 진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해본 사람이 말하는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는 단순히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존중하

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며,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의미’를 붙잡았습니다. 젊은 날의 호기심도, 권력의 야망도, 지식의 추구도 결국 그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리 달려도 허무만 남는 길을 걷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 멈추어 서서 솔로몬의 마지막 권면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이며, 헛되지 않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비로소 심을 얻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회복하게 됩니다.

데이빗의 영맥주석(David's Commentary): 전도서

초판발행	2026. 10. 16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참여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초강추!
CHANCE

국제 신학교

꿈을 향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